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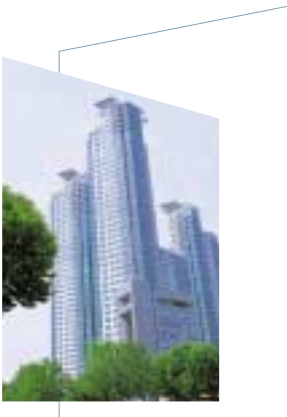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8월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의 건설업종을 유지하면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하나의 건설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각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 초안을 확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협회가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지혜와 슬기를 결집시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명실공히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듯이 이번의 위기도 기회로 삼아 우리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자」고 피력하였다.

한편, 이날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 보고에 이어서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고시 △적격심사관련 2005년 적용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발표 △제15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업무 추진 △시공감리 수수료 인상률 조정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방지 개선 등 그 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제15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및 제20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개최



◁ 제20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강대석)를 개최하고, 기능사 경력인정 및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제15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심의건을 원안(최종합격자 49명)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실시되는 실기검정시험에 위원 1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 3일간에 걸쳐 제15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서울정수기능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지난해부터 새로 추가된 실기검정은 지난 2003년 9월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인정기능사 기능면접심사를 기능실기검사로 전환하라는 지적에 따라 2004년 8월 24일 이사회에서 기능사경력인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험은 총 98명이 서류를 접수시켜 서류심사에서 5명이 불합격하였으며, 건축배관설비 54명, 플랜트배관 11명, 전기용접 18명, 보일러시공 4명, 공조냉동기계 5명(기계조립 종목에 응시한 1명은 실기검정비용 과다로 금회에는 실시하지 않음)이 실기검정시험에 응모하였으나 지난 8월 5일에 개최된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에서 49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한편 협회는 8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0차 인정기능사



△ 박종학 회장이 강석대(서울시회 회장)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회,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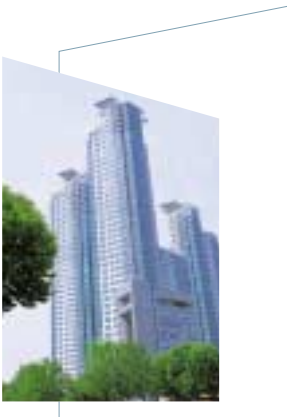


서울시회(회장 강석대)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임종태)는 최기원(주)삼건설비 대표이사)·정달홍(구보공영(주))·조종택(금주건설(주)) 점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미작산업(주)(대표이사 배태석)가 시공중인 통일동산우체국 신축 기계설비공사(발주처: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현장에 대한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난 1996년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로 건설교통부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자율점검을 통한 성실시공을 유도하자, 본격 활동에 나선 서울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현재 분리발주 시행되고 있는 시공현장을 자체 점검함으로써 설비공사의 고품질 시공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함은 물론 현장의 시공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하므로써 공사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회는 우수(성실)시공사에는 평가회의를 통하여 검증한 후 회원사 또는 현장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회와 경원전문대학, 2005 중소기업 정보화 산학연계교육 실시



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경원전문대학이 주최한 산학연계 정보화 교육이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와 경기도회 소속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경원전문대학 건축설비과(서광수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보화 교육은 협회 소속 59개 업체 71명이 신청을 하여 38개 업체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주)디씨에스(대표이사 이진천)의 협조로 건축기계설비 AutoCAD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총 30시간 동안 기계설비CAD실무, 기계설비CAD응용, 기계설비CAD 3차원 실무응용 등에 대해 집중 심화교육을 받았다.

7월 15일 수료식에서는 태우기술(주) 은근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31개 업체 34명에게 교육수료증이 주어졌으며, 중소기업청에 수료자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997년 서울시회와 경원전문대학은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기술혁신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설비산업 기술력 발전과 산학공동연구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회는 우수한 설비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과 취업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산학공동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회, 노동고문 위축

서울시회는 신홍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한길 대표)를 노동고문으로 위축하였다. 신홍식 노동고문은 △ 인사노무관련 정보제공 △ 인사노무관련 주요회의 참석 △ 쟁점 노동사례 원고 제공 △ 회원업체 상담 △ 인사노무관리 아웃소싱 △ 회원업체 지도점검 등을 할 예정이며, 상담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협회 서울시회(02-6240-1200)에 노무 상담신청 또는 노무법인 한길(02-583-7766)로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회, 중국 안휘성 안장협회와 협력증진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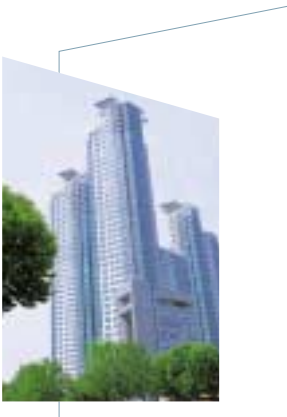


경기도회(회장 김영완)는 지난 7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 안휘성 안장협회(회장 왕성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설비업계의 협력 증진과 상호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였다.

이번 안휘성 안장협회의 방문은 경기도회가 지난 2003년 중국 안휘성 안장협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및 상호협력증진 협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경기도회 김영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03년 경기도회 대표단이 안휘성 안장협회를 방문했을 때 왕성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 등의 환대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 교류를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양국 설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휘성 안장협회 왕성첸 회장은 경기도회의 초청에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안휘성의 지리적 소개와 함께 안휘성 안장협회의 기구 및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안휘성 안장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간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승일 명예회장 기계설비업계 첫 금탑산업훈장 수훈 축하연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와 기계설비협회의회(회장 김문정)는 지난 7월 1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건설교통부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장을 회장, 기계설비협회의회 최상홍 초대회장, 김수삼 한양대학교 부총장, 대한설비건설 협회 홍평우 명예회장 등 내외귀빈과 기계설비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7일 개최된 건설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정승일 명예회장의 축하연을 개최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강석대 회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이날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40년 가까이 설비건설업에 종사해오면서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설비건설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또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많은 일조를 한 우리 협회 정승일 명예회장님이 설비건설업계 최초로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면서 「이는 정승일 명예회장님 개인의 영광과 아울러 우리 기계설비업계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하였다.

또 박종학 회장은 「그러나 현재의 우리 협회와 기계설비업계의 많은 발전이 있기까지는 고난과 극복이 접철된 가운데 협회 역대 회장님과 기계설비업계의 원로님들의 한결같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전 설비인들의 일치단결된 성원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정승일 명예회장과 한층 더

높아진 기계설비업계의 위상을 축하하기 위한 기계설비협회의 김문정 회장의 인사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장을 회장, 기계설비협회의회 최상홍 초대회장, 건설교통부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 한양대학교 김수삼 부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정승일 명예회장은 답례인사말에서 「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아낌없는 여러분의 후의와 성원 덕분이며, 이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설비건설업을 천직으로 삼아 40년 가까이 종사해 오는 동안 많은 좌절과 분노를 겪어 오면서도 후회하기보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것이 우리 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 정승일 명예회장은 「이번 금탑산업훈장 수훈은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설비건설업계가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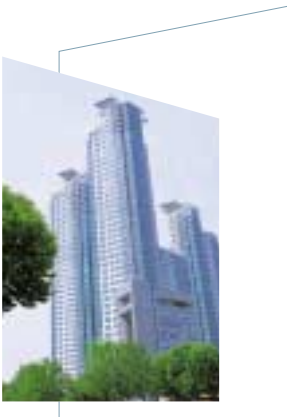
으로 건설산업발전에 더욱더 열정을 다해 달라는 우리 업계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설비건설업을 경영해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보 다 나은 설비건설환경 조성과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기 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2부 만찬행사에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이동락 초대회장, 박인구 3대 회장, 한국건설감리협회 최중철 회장 등 많은 내외귀빈들이 기계설비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제의를 하였다.

■ 축하음악회

한편 이날 제3부에서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박수길 학장의 진행으로 축하음악회가 진행되었으며, 박수길 학장은 음악 소개와 아울러 섬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기남 · 진귀옥의 Sullaria(블러바요-편지 2중창)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Mozart)” 중에서, 이은주 · 이영의 La ci darem la mano(자, 손을 잡을까요) 오페라 “돈 죠반니(Mozart)” 중에서, 정수연의 “그리운 금강산(최영섭)”, 배기남 · 유희엽의 Viens, Mallika(오너라, 말리카여) 오페라 “라크메(Delibes)” 중에서, 이은주 · 정록기의 pa,pa,pa... (파,파,파) 오페라 “마술피리(Mozart)” 중에서, 노대산의 “산아(신동수)”, 진귀옥 · 김범진의 “Mira, di acerbe lagrime(이 괴로운 눈물을 보십시오)”, 피아노 백경화 · 최재근의 지휘로 국립합창단의 “내맘의 강물(이수인), 사랑의 인사(Elgar), 경복궁 타령(민요)”, 배기남 · 김홍태 · 국립합창단의 Brindisi(축배의 노래) 오페라 “춘희(Verdi)” 중에서도 열창하였으며, 피아노는 이소영 씨와 민소영 씨가 수고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업계 간담회 개최 및 운영근 위원장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연



박중학 회장은 축사에서 「자동제어설비공사협회의회는 운영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업계의 권익보호와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동제어설비공사협회의회의 활동은 협회의 대내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동제어설비협회의회는 자동제어설비공사업계의 업역 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헌신한 김경호 전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업계는 지난 6월 27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중학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제어설비공사업계의 발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17일 건설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한국계장(주) 운영근 대표이사의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자동제어설비공사협회의회 운영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의와 격려 덕분」이라면서 「오늘의 모임이 우리 자동제어설비공사업계가 화합되고 단결된 한마당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협회의 일에 적극 성원하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피력하였다.



△ 김경호 전임 위원장과 운영근 위원장